

금강대학교대학원 학위논문지침 개정이력 현황표

[illegible]

금강대학교대학원학위논문지침

제 정	:	2009. 5. 1
개 정	:	2011. 11. 25
개 정	:	2020. 3. 1
개 정	:	2022. 12. 27

I.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방법<전면개정 2022. 12. 27.>

1.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소정 기일내에 심사용(석사학위과정은 3부, 박사학위과정은 5부)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칭한다)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용 논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쓰고 횡서로 한다.
 - 나. 국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영문초록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다. 용지의 질 및 크기는 임의로 할 수 있다.
 - 라. 인쇄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다.
 - 마. 논문의 본문 및 각주 등의 형식은 본 논문(제출용 논문) 작성 지침에 준한다.<신설 2020. 3. 1.>

II. 본 논문 제출자격 및 방법<개정 2022. 12. 27.>

1. 제출 자격

심사용 논문이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음을 심사위원장이 대학원장에게 보고한 후 심사용 논문 제출자는 본 논문을 작성 제출한다.<개정 2022. 12. 27.>
2. 작성 및 제출방법
 - 가. 본 논문은 다음 항에 기술하는 본 논문작성 지침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나. 완성논문은 논문심사위원 중 규정된 위원의 인준(날인)을 받아 대학원에 제출한다.<개정 2020. 3. 1.><개정 2022. 12. 27.>

III. 본 논문 작성 지침<전면개정 2022. 12. 27.>

1. 작성요령

가. 작성원칙

1) 국문 또는 국한문 혼용, 외국문 또는 그 혼용. 국문으로 작성 시 한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괄호 속에 병기함

2) 분량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나. 규격 및 용지

1) 규격: B5규격(182mm×257mm)

2) 용지: 백색 타이프용지나 80모조지 사용

다. 편집 및 인쇄

1) 인쇄: 양면 또는 단면

2) 여백: 용지의 위와 아래는 각각 15mm, 머리말과 꼬리말은 각각 10mm,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25mm로 설정

3) 문단모양: 들여쓰기 한줄 건너서 쓰고 (double space)

4) 글씨체: “바탕”(“바탕체”가 아님)

5) 글씨 크기

- 장: 15pt,

- 절 13pt,

- 소제목 12pt,

- 본문 10~11pt,

- 주는 본문보다 2pt정도 작게 최소 8pt 이상

- 줄간격: 170~180%,

- 자간 0%

라. 표지색깔 및 형식

1) 하드표지 : 흑색으로 하며, 금박인쇄, 클로스 양장제본으로 한다.

2) 소프트표지 : 회색 레쟈크 200g 이상으로 한다.

마. 겉표지 : 별지 1호 양식에 따르고 글자는 금박으로 찍는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논문제목 밑에 부제목(sub- title)을 붙여도 무방하다. 겉표지 안쪽에는 백색 모조지를 붙이고 면지는 120 모조지로 한다.+

2. 논문기재 순서 및 방법

가. 속표지

별지 3호 양식에 따른다.

나. 논문 인준서(Approval)

별지 4호 양식에 따른다.

다. 초록(Abstract)

초록은 A4용지 1~2매 분량으로 하되, 국문 논문의 경우 국문초록을 목차 앞에, 영문초록을 참고문헌 다음에 첨부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영문초록을 목차 앞에, 국문초록을 참고문헌 다음에 첨부한다.<개정 2020. 3. 1.>

라. 목차(Table of Contents)

I - 1 - 1) - (1), 또는 장 - 절 - 1 - 1) 등의 순으로 한다.<개정 2020. 3. 1.>

마. 표 및 그림 차례(List of Tables and List of Figures) * 초록, 목차 등 순서 변경

표1, 표2, 그림1, 그림2,라고 일련번호를 붙이고 제목을 기입한다.
<개정 2020. 3. 1.>

바. 본문(Text)

1) 본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서 론

본 론

결 론

2) 각주(footnote) : 페이지 하단에 구분선을, 각주번호 뒤에 하나의 빈칸을 삽입한 다음 작성한다(보통 문서편집기에서 자동 삽입됨). 각주의 일련번호는 숫자 뒤에 괄호를 붙여서 나타내되, 본문의 각주번호는 본문의 다른 숫자와 구분되도록 위 첨자로 표기한다. 각주에는 인용문헌의 자세한 서지사항, 인용된 경문의 원문, 보충 설명 등을 기입할 수 있다.<개정 2020. 3. 1.>

[보기]

.....1)2)

1)

2)

3) 인용문헌 표시방식<개정 2020. 3. 1.>

인용문헌은 ‘본문 내 인용(in-text citation)’과 ‘각주(footnote)’의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페이지를 나타낼 때에는 두 가지 인용방식 모두 ‘p.’ (단일 페이지) 또는 ‘pp.’(두 페이지 이상인 경우, 연속된 페이지는 ‘-’로, 연속되지 않은 페이지는 ‘,’로 표시)를 사용하며, ‘p.’, ‘pp.’ 등과 쉼표(,), 콜론(:), 세미콜론(;) 등 모든 문장부호의 뒤에 하나의 빈칸을 삽입한다(경문 인용의 경우 예외적으로 마침

표 바로 뒤에 페이지 번호 등을 적을 수 있음).

‘본문 내 인용’ 방식은 본문에 언급된 저자(편자, 역자)의 이름 뒤에 해당 문헌의 출판·간행년도를 괄호 속에 나타내는 방식으로, 페이지를 특정할 경우에는 출판·간행년도와 페이지 번호 사이에 쉼표(comma)를 삽입한다. 동일 저자(편자, 역자)가 동일 출판·간행년도에 출간한 문헌이 여러 편인 경우 출판·간행년도 뒤에 ‘a’, ‘b’ 등을 붙여서 구별한다. 본문의 문장에서 직접 저자(편자, 역자)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는 해당 문장 마지막 부분의 괄호 속에 저자(편자, 역자) 이름을 적고 하나의 빈칸을 삽입한 다음 출판·간행년도를 나타낸다(페이지 번호 추가 시 쉼표 삽입). 또한 인용문헌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 각 권마다 새로운 페이지로 시작되는 문헌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권수와 페이지 번호를 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각주’ 방식의 경우에는 ‘Vol. ##, p. ##’ 형식 사용).

[보기]

김금강(1999, p. 50)은 이상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박금강 2000; 이금강 2000a, p. 160; 이금강 2000b, p. 130; Robert 2005, 1: pp. 20-25).

‘각주’ 방식은 인용문헌의 자세한 서지사항(학술지 권/호수, 출판사 이름 등 포함)을 본문 하단의 각주에 제시하는 것으로서, ‘본문 내 인용’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추가적 설명을 제시하거나 인용된 경문의 원문을 제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문의 문장 끝부분에 각주를 붙이지만, 특정 용어에 대한 개별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기]

김금강은 이 경전이 여래장사상¹⁾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²⁾

1) 이금강, 「여래장사상에 대하여」, 『○○○연구』 ##호, 2000a, p. 160; William Robert, *On Tathāgatagarbha*, Boston: ABC University Press, 2005, Vol. 1, p. 20.

2) 김금강, 『한국불교사상의 전개』, 서울: ○○출판사, 1999, p. 50.

인용문헌을 ‘본문 내 인용’ 방식으로 이미 표기한 경우에는 ‘각주’ 방식을 통해 해당 문헌의 자세한 서지사항을 다시 제시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각주’ 방식으로 인용문헌을 제시한 다음 해당 문헌을 다시 언급할 경우 ‘본문 내 인용’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이 추가적 설명을 위해서는 ‘본문 내 인용’ 방식에서도 각주를 사용할 수 있다.

[보기]

김금강(1999, p. 50)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1)

1)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이금강(2000a, p. 160)은 이에 대하여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사. 참고문헌(Bibliography)

논문작성에 이용한 참고문헌을 국내 국외로 구별하여 저자의 성명을 가나다순 또는 abc순으로 하여 기재한다.

아. 부록, 기타(있을 경우에만)

3. 인용문헌의 서지사항 기입 방법<개정 2020. 3. 1.>

가. 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에는 각 항목을 다음 순서로 기재하되, 인용 방식에 따라 항목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한다.<개정 2020. 3. 1.>

- 1) 저자와 편집자의 이름
- 2) 번역자 이름<개정 2020. 3. 1.>
- 3) 책 이름<개정 2020. 3. 1.>

동아시아어로 출간된 서적의 제목은 반각 겹격쇠(『 』)를 사용하고, 서양어로 출간된 서적의 제목은 이탤릭체를 사용하여 나타낸다.<개정 2020. 3. 1.>

4) 출판에 관한 사항.

다음 사항을 기입한다. 가), 나), 다)는 필요한 경우에만 기입하며, 가)의 경우 동아시아어로 출간된 서적은 ‘5권’ 등으로, 서양어로 출간된 서적은 ‘5 vols.’ 등으로 표시한다. 라), 마), 바)는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형식으로 표기한다.<개정 2020. 3. 1.>

- 가) 총 권수
- 나) 총판, 개정판, 제3판 등의 판수
- 다) series title과 series number<개정 2020. 3. 1.>
- 라) 출판지
- 마) 출판사
- 바) 출판년도

본문에서 ‘본문 내 인용’ 방식으로 인용문헌을 표시한 경우 참고문헌 목록에 인용문헌을 나열할 때 출판년도를 저자, 편집자 및 번역자 이름 바로 뒤에, 그리고 책 이름 바로 앞에 기입해야 한다. p.22, pp.25-31 등으로 표시한다.

사) 권 수

권수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되, 동아시아

어로 출간된 서적은 ‘권1’, ‘권2’ 등으로, 서양어로 출간된 서적은 ‘Vol. 1’, ‘Vol. 2’ 등으로 표시한다.<개정 2020. 3. 1.>

아) 면 수

p.22, pp.25-31 등으로 표시한다.

나. 문헌이 정기간행물(학술지 등)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기재하되, 인용 방식에 따라 항목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한다. 동일한 명칭의 정기간행물이 다수 있어서 구분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출판지와 출판사(또는 학회 이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3. 1.> <개정 2022. 12. 27.>

1) 저자 이름

2) 논문 제목

동아시아어로 된 논문의 제목은 반각 홑낫쇠(「 」) 안에, 서양어로 된 논문의 제목은 쌍따옴표(“ ”)안에 써 넣는다.<개정 2020. 3. 1.>

3) 정기간행물 이름<개정 2020. 3. 1.>

동아시아어로 간행된 경우 반각 겹낫쇠(『 』)를 사용하고, 서양어로 간행된 경우 이탤릭체를 사용한다.<개정 2020. 3. 1.>

4) 권(호) 수<개정 2020. 3. 1.>

정기간행물 이름 뒤에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한국어로 출간된 경우 ‘1권’, ‘2호’, ‘3집’, ‘3권 1호’ 등으로 표시하고(중국어나 일본어로 출간된 경우에는 ‘卷’, ‘號(또는 号)’ 등의 한자로 표시함), 서양어로 된 논문은 권(Vol.)과 호(no.)가 구분된 경우 예컨대 ‘1권 2호’는 ‘1, no. 2’의 형식으로, 권과 호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숫자만으로 나타낸다.<개정 2020. 3. 1.><개정 2022. 12. 27.>

5) 간행년도<개정 2020. 3. 1.>

본문에서 ‘본문 내 인용’ 방식으로 인용문헌을 표시한 경우 간행년도를 저자, 편집자 및 번역자 이름 바로 뒤에 기입해야 한다.<개정 2020. 3. 1.>

6) 면 수

p.22, pp.25-31 등으로 표시한다.

다. 동일 문헌을 다시 언급할 경우<개정 2020. 3. 1.>

1) ‘본문 내 인용’ 방식에서 한 저자(편자, 역자)의 문헌을 인용하고 나서 동일한 문헌의 다른 페이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괄호 속에 ‘p.’와 함께 해당 페이지의 번호를 기입한다. 동일 저자(편자, 역자)의 다른 문헌이 인용될 경우에는 그것이 이미 앞의 문장에 언급되었더라도 ‘본문 내 인용’ 방식에 따라 해당 문헌의 출판·간행년도를 반복해서 기입한다.<개정 2020. 3. 1.>

[보기]

이와 관련하여 김금강(1995, p. 25)은 비판불교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김금강(2000, p. 16)은 이후 여래장사상에 대한 비판불교 사상가들의 비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비판불교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p. 20). …… 이것은 비판불교에 대한 그의 이전의 설명(김금강 1995, p. 22)과 사실상 동일하다.

2) ‘각주’ 방식에 따라 바로 앞에 인용한 문헌을 다시 언급할 경우 동아시아어로 된 서적과 논문은 각각 ‘위의 책’, ‘위의 논문’으로 나타내고, 필요한 경우 페이지 번호를 추가한다(동일한 페이지 반복 가능). 서양어로 된 서적과 논문은 모두 ‘ibid.’로 표시하고, 역시 필요한 경우 페이지 번호를 추가한다<개정 2020. 3. 1.>

[보기]

- (1) Wilbur L. Cross, The History of Henry Fielding, 2nd 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18, Vol. 1, p. 49.
- (2) ibid. (위 문헌의 같은 권, 같은 페이지를 의미함)
- (3) ibid., Vol. 2, p. 51. (위 문헌의 다른 권 및 다른 페이지를 의미함)
- (4) 김금강, 『한국불교사상의 전개』, 서울: ○○출판사, 1999, p. 50.
- (5) 위의 책, p. 52.

3) ‘각주’ 방식에서 전에 인용한 문헌(바로 앞에 나온 것이 아님)을 다시 언급할 경우 동아시아어로 된 서적과 논문은 저자(편자, 역자) 이름과 쉼표 다음에 각각 ‘앞의 책’, ‘앞의 논문’으로 나타내고 필요한 경우 출판·간행년도와 페이지 번호를 추가한다. 서양어로 된 서적과 논문은 저자(역자, 편자) 이름(혼동의 우려가 없으면 성만 기입) 다음에 서적과 논문의 이름을 축약하여 나타낸다.<개정 2020. 3. 1.>

[보기]

- (1) G. D. H. Cole, Self-Government in Industry, 5th ed. rev., London: G. Bell and Co., Ltd., 1920, p. 42.
- (2) Robert A. Dahl, “Worker’s Control of Industry and the Labour Par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42, 2000, p. 800.
- (3) Cole, Self-Government, pp. 38-39.
- (4) Dahl, “Worker’s Control,” p. 895.
- (5) 김금강, 『한국불교사상의 전개』, 서울: ○○출판사, 1999, p. 50.
- (6) 이금강, 「한국 불교설화의 특징」, 『○○○연구』 40호, 2000, pp. 52-53; 이금강, 「불교설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 51호, 2011, pp. 12.
- (7) 김금강, 앞의 책, p. 44; 이금강, 앞의 논문(2011), p. 15.

라. 경문의 인용 방법<신설 2020. 3. 1.>

1) 한역 경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형식을 따른다(‘_’는 빈칸. ‘[]’는 생략 가능).

[○○○_저,○○○_역,]『○○○○經/論/疏』[_권##],_大正藏/卍續藏/新纂續/高麗藏_##.###上-中[_“○○○○○○○○.”]

* 저자/번역자의 경우 각주에서는 혼동의 우려가 없을 경우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참고문헌 목록에서는 명시해야 한다.

** 인용하는 부분의 권수를 ‘권##’의 형식으로 표기하되, 단행본 서적의 경우 각주에서는 권수를 표시하지 않지만 참고문헌 목록에서는 해당 서적의 총 권수를 표시해야 한다.

[보기]

(각주) 『大乘起信論』, 大正藏 32.575a.

(참고문헌)

馬鳴 著, 眞諦 譯, 『大乘起信論』, 1권, 大正藏 32.

*** 해당 경문이 大正新修大藏經, 卍字續藏經, 新纂續藏經, 高麗大藏經의 몇 권(##), 몇 페이지(###), 몇 단(上, 中, 下)에 나오는지를 ‘약호(‘大正藏’, ‘卍續藏’, ‘新纂續’, ‘高麗藏’ 등)_##.###上/中/下[-###上/中/下]’의 형식으로 나타낸다(동일한 페이지의 경문일 경우에는 ‘『大乘起信論』, 大正藏 32.575上-下’와 같이 단만 표시함).

**** 인용할 경문을 나타낼 경우 위의 항목 입력 후 하나의 빈칸 삽입 후 따옴표 안에 나타내지만, 본문에 경문의 한글 해석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2) 티베트대장경의 경우

약어(P.=Peking판, D.=Derge판, N.=Narthing판, C.:Cone판) 뒤에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쉼표 뒤에 페이지 및 단(a, b, c)과 행을 나타낸다.

[보기] P. 103, 15a2-3.

3) 팔리대장경의 경우

약어(DN.=*Dīgha Nikāya*, Sn.=*Suttanipāta*, Vism.=*Visuddhimagga* 등) 뒤에 권수 또는 계송 번호, 페이지 번호 등을 기입한다.

[보기] DN. II, p. 135=*Dīgha Nikāya* Vol. 2, p. 135.

마. 인터넷 자료의 인용 방법<2020.3.1. 신설>

인터넷 정보의 인용은 학술적 가치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한정하고(개인 블로그 등 인용금지), 그 인용은 온전한 URL 정보와 검색일자를 표기한다.

[보기]

<http://www.studies.worldtipitaka.org>

(검색일자: 2013. 2. 15.)

바. 참고문헌 목록 작성방법<신설 2020. 3. 1.>

1) 참고문헌은 원전 자료와 2차 문헌으로 구분하여 가나다/알파벳순으로 정렬하되, 동일 저자의 문헌 중 두 번째 이후 나열된 항목에서 저자 이름은 ‘-----’로 표시한다. 동일 저자의 여러 문헌을 참고할 경우 우선 출간년도를 기준으로 최근의 문헌부터 오래된 문헌의 순서로 정렬하고, 동일한 출간년도의 문헌들은 다시 가나다/알파벳순으로 정렬한다.<개정 2022. 12. 27.>

2) 원전 자료는 ‘III. 3. 라’의 규정에 준하여 나타낸다.

3) 2차 문헌의 경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문헌의 순으로 나열한다.

4) 서양어권의 저자 이름은 참고문헌에서는 ‘성(family name),_이름(given name)’의 형식으로, 본문의 각주에서는 ‘이름_성’의 형식으로 표시한다(이하에서 ‘_’은 한 칸의 공백).

5) 각주에서는 ‘저자 이름,_『논문 제목』,_『정기간행물 이름』_##호/집/권,_출간지:_연구회/학회,_간행연도’, ‘저자 이름,_『책 제목』[_##권],_출간지:_출판사,_출판연도’의 형식으로 주요 항목을 쉼표(,)로 구분하지만, 참고문헌 목록에서는 ‘저자 이름,_『논문 제목』,_『정기간행물 이름』_##호/집/권,_출간지:_연구회/학회,_간행연도’, ‘저자 이름,_『책 제목』[_권수##],_출간지:_출판사,_출판연도’와 같이 마침표(.)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이는 서양어권 도서의 경우 참고문헌 목록에서 저자 이름을 <성,_이름>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항목들도 쉼표로 구분할 경우 공저의 저자 이름들을 구분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각주와 참고문헌 목록에서 동일한 명칭의 정기간행물이 다수 있어서 구분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출판지와 출판사(또는 학회 이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7.>

6) 공저의 경우 동양어권 도서는 저자 이름을 가운데띄점(.)으로 연결하고, 서양어권 도서는 ‘제1저자 성,_제1저자 이름_and_제2저자 이름,_제2저자 성’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서양어권 도서에서 3인 이상 공저인 경우에는 ‘제1저자 성, 제1저자 이름_and_others’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각주에서 사용될 때에는 모두 ‘이름_성’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보기]

(각주) Richard H. Robinson and Willard L. Johnson, The Buddhist Religion: A Historical Introduction, 4th edition, Belmont, CA: Wadsworth, 1997, pp. 20-25.

(참고문헌) Robinson, Richard H. and Willard L. Johnson. The Buddhist Religion: A Historical Introduction. 4th edition. Belmont, CA: Wadsworth, 1997.

7) ‘각주’ 방식으로 나타낸 참고문헌 목록은 ‘III. 3. 가. 나.’에 적시된 항목별 순서대로 나타내되 위의 5)항에서 적시한 대로 주요 서지사항을 구분하는 쉼표를 마침표로 바꾼다. ‘본문 내 인용’ 방식으로 나타낸 참고문헌 목록의 경우에는 저자(편자, 역자) 이름 바로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출판·간행년도를 표시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1호) 석(박)사학위논문 표지 (19cm X 26cm)

	3 cm	
碩(博) 士 學 位 論 文 (14포인트)		
	1.5 cm	
佛敎의 造形觀 研究 (12-24포인트)		
	4 cm	
指導敎授 金 學 子 (15포인트)		
	6.5 cm	
金剛大學校 大學院 (14포인트)		
	0.6 cm	
社會福祉佛敎學科 佛敎學專攻 (14포인트)		
	1 cm	
李 永 學 (15포인트)		
	1 cm	
2012 年 (14포인트)		
(학위수여년도)		
	3 cm	

석사학위논문은 “ 碩 士 學 位 論 文 ”으로 하고,
박사학위논문은 “ 博 士 學 位 論 文 ”으로 한다.

(별지 2호) 석(박)사학위논문 등 표지

	↑ ↓	... 2 cm
	碩 士 學 位 論 文(12포인트)
	佛 教 의	
	造 形 觀(12-24포인트)
	研 究	
	李 永 學(14포인트)
	↑ ↓ 2 0 1 2 年 1.5 cm
		→ 학위수여 예정 년도 (14포인트)
	↑ ↓ 2 cm

(별지 3호) 석(박)사학위논문 내표지 (19cm X 26cm)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px;"> ↑ ↓ 6 cm </div> <div style="flex-grow: 1;">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佛敎의 造形觀 研究 ……………(12-24포인트)</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px;"> ↑ ↓ 2.5 cm </div> <div style="flex-grow: 1;">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指導敎授 金 學 子 ……………(14포인트)</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px;"> ↑ ↓ 3 cm </div> <div style="flex-grow: 1;">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이 論文을 文學碩(博)士學位 請求論文으로 제출함 ……………(16포인트)</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px;"> ↑ ↓ 2 cm </div> <div style="flex-grow: 1;">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2011 年 11 月……………(14포인트)</p> <p style="font-size: 0.9em; margin: 0;">(심사용논문 제출 월 : 5월 또는 11월)</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px;"> ↑ ↓ 1 cm </div> <div style="flex-grow: 1;">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金剛大學校 大學院 ……………(14포인트)</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px;"> ↑ ↓ 1 cm </div> <div style="flex-grow: 1;">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社會福祉佛敎學科 佛敎學專攻 ……(14포인트)</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px;"> ↑ ↓ 2.5 cm </div> <div style="flex-grow: 1;">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李 永 學 ……………(14포인트)</p> </div> </div>

석사학위논문은 “ 이 論文을 文學碩士學位請求論文 ”으로 하고,
박사학위논문은 “ 이 論文을 文學博士學位請求論文 ”으로 한다.

(별지 5) 석(박)사학위논문 국문초록 (19cm X 26cm)

	↕ 3 cm	
논 문 제 목		
	↕ 1 cm	(14 p.t 고딕)
성 명		
	↕ 3 cm	
금강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지도 교수 김 학 자) (12 p.t)		
	↕ 1.5 cm	
논문내용		
		(11 p.t)

(별지 6) 석·박사학위 논문 영문초록(19cm × 26cm)

ABSTRACT* ← 대문자

↑

4행

↓

논문 제목

↑

3행

↓

성명 (氏名을 뒤에 둔다)

↑

4행

↓

Department of English, Graduate School 행간을 띄우지 않

Geumgang University

Nonsan, Korea

↑

2행

↓

(Supervised by Professor Kil-Jun Sung)

↑

4행

↓

Since World War II, Joseph Conrad has attracted many readers and critics. The postwar generation began to reevaluate his works. Conrad's characters are surrounded by hostile universe of chaos and confusion

↑

2행

↓

* A thesis(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Geumgang University in a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Doctor of Philosophy) conferred in February 2011.

(행간을 띄우지 않으며, 영문초록 첫페이지 하단에 찍을 것)